

# ‘전력 재정비’ 페퍼스, 홈에서 연패 사슬 끊는다



### 1라운드 개막전 승 이후 외인 공백에 5연패 빠져 오늘 현대건설전... 테일러 합류 공격 전인 기대

5연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2라운드에서는 연패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

페퍼스는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에 세트스코어 0-3(21-25 13-25 15-25)으로 완패하며, 5연패에 빠졌다.

페퍼스는 지난달 22일 한국도로공사와의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세트스코어 3-0(25-17 25-22 25-14)승을 거두며 ‘만년 꼴찌’ 이미지를 탈피하는 듯 했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5연패를 하면서 승점 1점을 더하는 데 그친 페퍼스(1승 5패·승점 4)는 7개 팀 중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존 외국인 선수 자비치의 어깨 부상으로 선수 교체할 예정이던 페퍼스는 이후 대체 선수 테일러 프리카노의 정식 선수 등록 절차가 마무리 되기까지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태로 3경기를 치렀다. 팀의 위기였지만, 국내 선수들에게는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

페퍼스의 연패 기간 외국인 선수의 강력한 ‘한방’ 부재가 아쉬웠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선수들은 매 경기 1세트 이상을 따냈었다.

팀 위기의 순간에 공격 득점을 책임진 박정아, 강점인 높이를 살려 네트를 장악한 장위, 공수 양면으

로 안정적인 이예림 등이 등판해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선수 없이 잘버텼던 페퍼스는 1라운드 마지막경기였던 IBK전에서 무너졌다.

팀 리시브 효율이 28.99%로 떨어지면서 모든 세트를 내줬다. 또 페퍼스의 팀 공격 성공률이 25.69%에 그친 데 비해 IBK는 39.81%의 성공률을 보였고 서브에서도 10-2로 앞섰다.

IBK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른 페퍼스의 새 외국인 선수 테일러는 팀 내 최다 득점 13점(공격성공률 27.27%)을 따내며 분전했지만, 팀 승리를 견인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양 팀 최다 득점을 쏘아올리고 2세트에서 만 서브에이스 5개를 기록한 상대 빅토리아 탄자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였다.

하지만 호흡을 맞춘 시간이 짧았던 만큼 테일러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장소연 감독은 “테일러와 호흡을 맞춘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 호흡이 좋아지고 시간이 투자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며 “1라운드 초반 외국인선수가 빠지면서 개막전 승리 분위기를 못 이어갔지만 그때 국내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은 충분히 가능성 있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2라운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3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을 상대로 2라운드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 9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 알토스와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지친 표정으로 코트를 벗어나고 있다. (KOVO 제공)

로 새로운 전력을 정비한 페퍼스는 13일 오후 7시 안방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을 상대로 2라운드 일정을 시작한다.

페퍼스는 지난 5일 현대건설과 펼친 1라운드 경

기에서 세트스코어 1-3(16-25 25-17 21-25 17-25)으로 패배한 바 있다. 당시 모미를 앞세운 현대건설의 강하고 빠른 플레이에 끌려가는 형세였지만 페퍼스는 상대에 비해 높은 팀 리시브효율과 낮은

범실로 만만치 않은 전력임을 평가받았다. 테일러와 기존 선수들이 2라운드에서는 최상의 호흡을 갖추고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광주·전남 학생검객들, 전국대회 금빛 활약

### 남자중등부 사브르 단체전 금 등

전남 강진과 장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남녀중등별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전남 중검객들이 활약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부 남녀 펜싱 선수 30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장현경펜싱클럽은 남자중등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빛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비오(광주 살레시오중 3년), 최지현(나주 영산중 2년), 박여찬(곡성 옥곡중 1년), 조준영(담양 한재중 1년)으로 팀을 이끈 장현경펜싱클럽은 강진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 오성중을 상대로 45-43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장현경펜싱클럽은 16강에서 대구 매호중에 45-27로 승리한 뒤, 8강에서 광주 하남중에, 준결승에서 대전매봉중에 각각 45-41로 제치며 결승에 올랐다.

장현경 감독은 “선수들의 심리적인 요소에 많은 신경을 썼다. 긴장을 최대한 낮추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편이다”며 “그동안 훈련을 통해 체력을 다지고 스킬적인 부분에 집중했던 것이 성과로 드러



장현경펜싱클럽 선수단이 지난 11일 강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남녀중등별선수권대회에서 남중부 사브르 단체전 우승기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범 코치, 조준영, 최지현, 윤비오, 박여찬, 장현경 감독. (장현경펜싱클럽 제공)

난 것 같다. 앞으로도 전문체육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여고는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중등부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전남여고는 부전승으로 8강에 진출해 울산스포츠클럽고교를 상대로 45-44승을 거뒀고, 준결승에

서 대전여고에 33-45로 패하면서 서울 창문여고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고펜싱연맹이 주관했으며 강진군과 장흥군의 공동 협력을 통해 유치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양궁 임시현,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



올해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현(한국체대·사진)이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일 올해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부문에서는 임시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심판상 두화정(국제펜싱연맹), 공로상 손영욱 모동중학교 교장, 장애인체육상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백남식 회장과 한사랑학교 허영선 교사 등 5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강원도청)의 아버지 김규남 씨와 근대5종 국가대표 전용태(광주시청)의 어머니 방운정 씨가 단양시 체육회 최원영 사무국장과 함께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정해졌다.

1963년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과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지난해에는 육상 국가대표 이상혁(용인시청)이 경기상을 받았다.

임시현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르며 한국 양궁의 위상을 드높인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경기상 수상자가 됐다.

임시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에서 연달아 한국 선수단 최우수선수(MVP)에 뽑혔고, 올해 전국체전 MVP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대한체육회 선정 체육대상도 받았다.

체육발전 유공 부문에서는 체육훈장 30명, 체육포장 6명 등 총 36명이 수훈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선수·지도자 부문에서는 사격 김서준(부산시청), 펜싱 김준호(화성시청), 레슬링 김현우(삼성생명), 양궁 류수정 감독(계명대)과 장해진 차장(한국토지주택공사), 보치아 윤추자(성남시 장애인체육회) 6명이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영 총재는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부문에서 체육훈장 거상장을 받았다.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 ‘장애인 선수 기량 향상 기여’ 전문체육지도자 12명 포상금 2000만원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여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해 기여한 전문체육지도자 12명에게 포상금 2000만원을 수여했다.

시장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일원에서 ‘전국체전 후원회 및 발전위원회 포상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애인전문체육지도자를 격려하고 시 소속 선

수단의 발전 도모를 위해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한상득 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현성 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재홍 남구체육회장, 박상규·정형렬 발전위원회 추진부단장과 윤진영 발전위원회 추진위원 등이 참석해 지도자들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

한상득 수석부회장은 “광주 대표선수 지도를 위해 지난 일 년간 노력해 온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장애인체육의 최

일선에 있다는 큰 긍지와 자신감으로 뛰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지원을 위한 이번 포상금은 30여곳의 기업·단체 후원금과 시장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한편, 시장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지난 10월 김해 일원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금메달(82개)을 획득, 2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년 11월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

2024년 11월 11일(금) 오후 7시 기획공연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